

Abstract Submission No. : IL-9060

조영증강 초음파를 이용한 급성신손상 후 신장 예후의 예측

Jungho Shin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Republic of

급성 신손상은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중증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이들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생존하게 되더라도 다수의 환자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고통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치료 전략은 제한적이다. 신장으로의 관류를 유지하는 것이 신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다. 하지만 과도한 수액 치료는 신장 울혈을 야기하고 오히려 신손상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장의 관류 정도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신장 보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조영증강 초음파는 거대 혈류 순환뿐 만 아니라 미세한 혈류 순환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검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받은 패혈증 급성신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증강 초음파를 통해 관류 상태를 평가하였고, 측정된 관류 상태가 장기적인 신기능 회복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